

# 「聖學輯要」에 나타난 家族觀

## Family Philosophy in 「The Anthology of the Essentials Sagely Learning」

원광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강 사 : 洪 달아기

*Dept. of Home Management*

*Wonkwang University*

*Instructor : Dal Ah Gi Hong*

목	차
I. 서 론	IV. 正家를 위한 가족관
II. 聖學輯要의 저술동기와 구성	V. 결 론
III. 聖學輯要에 나타난 사상적 특징	참고문헌

### =ABSTRACT=

This thesis focus on the analysis of the family relationship in Yulgok's thoughts. He thought that to control the family well may have on influence upon the the things done outside home and he put its ultimate purpose on the family concord.

To keep the harmony family, the record relation between the family which has to be based on respect and sincerity, must be presumed.

In terms that the marital relationship is the most important point of all human ethics, he advised the mutual sincerity in choosing a spouse.

Parenthood must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filial duty and charity, and brothers and sisters must respect each other with fraternity and politeness.

These thoughts, which must be inherited today, can be the best ways to keep a desirable family relationship.

### I. 서 론

본 연구는 한국의 사상은 유교적 전통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청인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의식, 인간성회복을 위해서는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정이 바르게 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따라서 조선조 경세가며 교육가로 알려진 율곡이 주장한 가정을 가정답게 하는 도리(正家, 齊家)를 고찰하여 유교적 전통사회에서 바람직했던 가

족간의 도리(家道)를 알아보고,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계승해야 할 가족간의 도리는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현대 한국인의 의식과 삶 사이의 혼란과 부조화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정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실마리가 된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된 것이다.

가정은 부부를 중심으로 아버지와 자녀 등 근친자들이 한데 모여 의·식·주 따위의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집단으로 이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한다.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져 있는 가장 밀도높은 인간관계로써 인간형성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곳이다. 또한 가족간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서 사회에서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은 전통사회로부터 현대사회로의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져서 가족생활의 규범이나 가치관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문화와 외래문화 사이에 생기는 혼란과 충격을 조화시켜 수용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회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더욱 심화되어 전통적인 확대가족의 감소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나타났으며, 가치관에 있어서도 강하게 이어져온 가족주의 가치는 가족이기주의로 변형되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한결같이 윤리, 도덕의 타락을 염려하고 있으며 가족의 와해,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등 가정내 문제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오늘날 현대화는 잘못 인식되어 현대화는 서구화이고 또 좋은 것이라는 잘못된 등식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만연되었으며 전통적인 것은 시대에 뒤떨어져 좋지 못한 것이라는 등식까지도 나오게 된 한심한 경우도 있다(황성모, 1984; 김종서, 1990).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가족제도의 변화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족구조의 변모도 부부관계, 자녀와 부모관계, 전통적인 효의 관념도 바뀌고 있지만(교육·윤리연구실, 1992) 윤명노(1985)는 가족간의 윤리·도덕적 실천을 위해서 보다 필요 불가결한 것은 어린시절부터의 가정교육을 통한 도덕적 생활의 습관화인데 이것은 先人들이 윤리·도덕 정신을

가정교육을 통해 자손에게 전해왔던 것처럼 先人들이 이어온 전통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유교문화의 전통속에서 살아왔으며 이러한 유교적 전통사상은 우리의 생활양식과 행동양식의 기층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율곡이 가정을 가정답게 해야만 비로소 대외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 <聖學輯要>의 正家篇을 중심으로 전통유교사회의 가족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正家篇은 가정생활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으며, 가족원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서술했다. 본 고에서는 성학집요 正家篇의 내용 중에서 가족간의 인간관계를 다룬 내용만을 발췌하여 전통유교사회의 가족관계를 고찰함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의 가족내 인간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II. 聖學輯要의 저술동기와 구성

성학집요는 栗谷이 40세(1575. 7.)에 저술한 것으로 君王의 道를 자세히 설명했다. 당시 25세인 宣祖에게 올린 저술로서 중국철학의 대표적 유교 경전인 6經4書와 宋代 유학자들의 저술에서 眞髓만을 뽑아 정리한 것(TuWei-Ming, 1985, 318)으로 일종의 編著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율곡은 성학집요의 저술이 자신의 글이 아니라 성현의 글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율곡을 단순한 전달자라고는 할 수 없으며 凡例에 보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때는 '신이 살피건데(臣按)'라고 한다고 했고 小註는 대개 자신의 의견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 율곡의 견해를 살펴볼 수 있다.

성학집요의 저술동기는 사람들이 道學에 밝지 않아서, 수많은 經書들이 있지만 理致를 살피는 것이 精密하지 못하고, 知見이 넓지 못하여 실천함이 篤實하지 못한 것은 그 요령을 얻지 못한 까닭이므로 道學의 요령을 얻어 실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栗全 卷19, 進筭). 성학집요에는 君王의 道를 밝혔으나 세상의 道理는 상하에 통하므로 아래로는 일반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널리 보고 마땅히 효과를 얻을 것을 序文에 밝히고 있다.

본 연구는 성학집요의 제 3篇 正家에 나타난 家族觀을 고찰하고자 한다. 성학집요의 내용구성은 전체 5편으로 다음과 같다.

제1편 統說 : 修己와 治人을 합하여 말한 것으로 <大學>의 德을 밝히는 것, 백성을 새롭게 하는 것과 지극히 착한데 이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제2편 修己 : <大學>의 明德을 밝히는 것으로 13장으로 이루어졌다. 修己를 善에 이르러 그치라는 것이다.

제3편 正家 : 8章으로 이루어져 가정을 고르게 하는 것을 말하였다.

제 1 장 總論은 家庭을 바르게 하는 道理를 전반적으로 다루었으며,

제 2 장 孝敬은 모든 행동의 첫째가 된다고 보아 여러 방면의 孝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

제 3 장 刑內는 집을 다스리는 데는 아내가 중요하다 보고 아내의 道理를 논했다.

제 4 장 教子는 胎教에서 부터 시작되며 교육의 순서와 양육자의 자질까지 논하고 있다.

제 5 장 親親은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妻子에게 모범이 되며 형제간에 우애하는 道理에 대해 논하고 있다.

제 6 장 謹嚴은 각 가족과 친척간에 삼가해야 하는 禮節을 내용으로 집안을 다스리는 道를 모두 다루었다.

제 7 장 節檢은 검소와 절약, 저축에 대해 논했다.

제 8 장 正家 功效는 앞서 설명한 것을 실천함으로써 齊家를 이루면, 능히 治國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다는 效果를 말했다.

제4편 爲政 : 10章으로 이루어져 政치를 하는데 근본과 규모와 節目에 대해 논했다. 治國平天下를 지극히 착함(至善)에 그치라고 했다.

제5편 聖賢道通 : 道學의 전통을 堯舜·孔孟·程朱 등으로 연결짓고 그들의 언행과 성취한 事功의 實跡을 말하였다.

### III. 聖學輯要에 나타난 사상적 특징

가정생활에 있어서 율곡이 특히 강조한 사상은 공경(敬)과 성실(誠)이다.

율곡은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에 바탕을 둔 敬이라야만 진실된 誠 즉, 誠實에 이를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 善하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 사고이며 만약 인성이 惡하다면 아무리 敬을 공부한다 해도 誠의 實效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율곡은 敬에 대해 말하기를

신이 살피건데 敬이란 聖의 시작이요 끝이다. 그러므로 朱子는 말하길, 持敬은 窮理의 근본이니 깨닫지 못한 이는 敬이 아니면 알수 없다(栗谷全書 卷20 성학집요 II, 收斂章).

라고 하였다. 즉, 말만 앞세우고 실천하지 않은 知識이란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이는 곧 마음의 성실성(참다운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敬이 聖學의 시작임을 말한 것이다. 또한 朱子와 程子의 말을 인용하여

이미 깨달은 이는 敬이 아니면 지킬 수 없으며, 敬과 義가 이루어지면 德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은 것인데 聖人도 또한 그러하다(栗全 卷20, 성학집요 II, 收斂章).

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敬이 聖學의 끝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학문하는 이들은 먼저 敬공부를 해야 하며 敬이 바탕이 되어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擊蒙要訣에서는 학문하는 이의 몸가짐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의 행동거지를 ‘九容(아홉가지의 몸가짐)’으로 敬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다.

이른바 구용이라는 것은 발을 무겁게 가지는 것(足容重)과 손을 공손히 갖는 것(手容恭)과 눈을 단정히 뜨는 것(目容端)과 입을 신중히 다무는 것(口容止)과 소리를 조용히 내는 것(聲容靜)과 머리를 똑바로 갖는 것(頭容直)과 숨소리를 맑게 하는 것(氣容肅)과 서있는 모습을 의젓하게 갖는 것(立容德)과 얼굴빛을 장엄하게 갖는 것(色容莊) 이오(栗全 卷27, 擊蒙要訣, 持身章).

또 율곡은 몸가짐 뿐 아니라 언어에서도 若及의 자세를 말하고 있다. 詩經 大雅篇을 인용하여

흰 玉의 점은 같면 되지만 이 말의 점은 어찌할 수 없다. 생각없이 경솔히 말하지 말고 구차하게 이렇다고 이르지 말라. 나의 혀를 잡아줄 이가 없으니 함부로 입 밖에 말을 내지 말라(栗全 卷20, 성학집요 II, 收斂章).

이와같이 삼가하고 조심하는 敬의 자세가 학문 함에 있어서 始終의 원리가 됨을 강조했으며 그의 語錄에서는 ‘舍生取義’를 강의하면서 敬에 從事하면 욕심을 적게할 수 있고 誠에 도달할 수 있다(栗全 卷31, 語錄上)라고 하여 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敬의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한다 했다.

율곡은 敬으로서의 자세와 인간으로서의 진실한 마음(實心)과 진실한 공효(功效)를 강조하는데 이것은 모두 誠實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율곡이 誠實을 강조함에는 남다른 데가 있다.

그는 自警文에서도 敬의 자세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 항상 마음가짐을 삼가하고 경계하여 혼자 있을 때 삼가하는 생각을 가슴 속에 지니고 늘 게으르지 않으면 일체 그릇된 생각이 자연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온갖 나쁜 행실은 다 혼자 있을 때를 삼가하지 않는 데서부터 생겨난다.
- 혼자 있을 때를 삼가한 뒤에야 가히 자연과 더 붙어 시를 지어 읊으며 즐길 수 있는 뜻을 알게 된 것이다(栗全 卷14, 雜著 1).

혼자 있을 때에도 삼가해야 한다는 것은 敬의 자세의 극치이며 이는 곧 지극한 성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율곡이 敬의 자세를 강조함은 가정에 있어서도 가족간의 공경을 실천해야만 가정이 바르게 된다고 보았다. 즉,

효도를 해야하는 것을 모르는 자는 없으면서도 효도하는 자는 드물며 형이 있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자는 없으면서도 공경하는 자는 적으며, 입으로는 부부가 서로 공경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齊家の 功效를 거두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이는 모두 참다운 마음

이 없는 까닭이다. 한 마음이 참되지 못하다면 만사가 모두 거짓이므로 어디에 간들 가히 행할 수 있겠으며, 한 마음이 실로 진실하다면 만사가 모두 진실한 것이니 무엇인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栗全 卷21, 성학집요 III, 修己 誠實章).

라고 하여 가족간의 공경함은 참다운 마음(誠)에 근거하며, 자연의 이치와 같이 인간에 있어서도 마땅히 행해야할 바가 있으므로 이를 행하는 참된 마음 즉, 성실성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다.

율곡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성실히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誠을 강조했다.

만일 뜻이 誠實하지 않으면 확립되지 못하고 이치가 성실하지 못하면 窮格하지 못하여 기질이 성실하지 못하면 변화할 수 없으니 다른 것도 미루어 알 수 있다(栗全 卷21, 성학집요 III 修己).

이와같이 성실하지 않으면 자신의 내면생활에 절대로 충실할 수 없으며 변화와 발전 또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율곡은 공경과 성실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정성이란 하늘의 實理요, 마음의 본체인데, 사람이 그 본심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私邪가 있어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공경을 주로 삼아 사사를 다 없애면 본체는 곧 완전하게 된다. 공경(敬)은 用功에 긴요한 것이요, 정성(誠)은 收功하는 밑바닥이므로, 공경이 정성으로 이르른다(栗全 卷21, 성학집요 III 修己, 正心章).

敬과 誠이 서로 表裏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敬을 외면적인 행위규범이라고 한다면 誠은 내면적인 행위규범인 것이다. 따라서 敬과 誠은 상호보완적이며 어느 한편만으로는 완전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같이 율곡이 공경과 성실을 강조하는 德을 도탑게 하고 복돋우는 것을 소망하는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고 하겠다. 일상생활에서의 마음이

짐과 몸가짐 뿐 아니라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도나 윗사람에 대한 공경, 부부간의 공경은 가정을 고르게 하며(齊家), 이는 참다운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정에서 각자 행해야 할 마땅한 바는 공경과 성실로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다.

#### IV. 正家를 위한 家族觀

##### 1. 부부관계

###### 1) 배우자 선택

율곡이 말하기를 집을 다스리는 데는 먼저 아내를 바르게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시경을 인용하여

아내를 바르게 하면 형제간에 이르고 그러면 집과 나라를 통솔할 수 있다고 하였다(栗全 卷23, 성학집요 V, 刑內).

그리하여 율곡은 가정을 형성하기 위한 첫단계로써 배우자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광형의 말을 인용하여,

배필은 사람을 낳는 시초가 되고 만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므로 혼인의 예가 바르게 되어야만 만물이 이루어져서 천명을 다하게 된다.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부부이며 부부는 혼인에 의해 비로소 탄생된다. 또 혼인에 의해 친족이란 공동체가 점점 확대됨으로써 가정이란 집단은 더욱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다. 송(宋)나라 범조우가(范祖禹)가 선인황후(宣人皇后)에게 아뢰기를,

황제가 황후를 맞아들이는 일은 국가의 대사(大事)이며 만세의 근본이다. 이는 나라의 복록이 걸려 있고 백성의 덕화에 앞서는 것입니다. 지금 마땅히 먼저 알아야될 일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문벌(族姓)이요, 둘째는 여자의 덕행이며, 셋째는 예를 숭상하는 것이요, 넷째는 널리 의논하는 것입니

다(栗全 卷23, 성학집요 V, 正家, 刑內).

여기서 문벌(族姓)이라 함은 가정환경을 말한다. 그 시대의 규수는 외부와는 연락이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였고, 家庭內에서의 教育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벌을 보고 祖, 父를 보며 그 집안의 家風과 家道를 살펴 여러가지를 참작했었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그 어머니를 보면 딸의 됃됨이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잘 대변해 준다.

##### 2) 아내의 구실

율곡은 <詩經>의 말을 인용하여, 아내를 바르게 하면 형제간에 이르고 그러면 집과 나라를 통솔할 수가 있으며 가정에서 주체가 되는 부부중 아내의 구실이 가족간의 우애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 주자(朱子)의 말을 인용하여,

먼저 아내를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이다. 아내가 올바르게 되면 곧 남편도 바르게 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栗全 卷23, 성학집요 V, 正家, 刑內).

하여 여자는 안에서 그 위치를 바르게 하여야 하고, 남자는 밖에서 그 위치를 바르게 하여야 한다. 남녀가 바른 것은 천지의 대의(大義)이다.

따라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구실에 충실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구실에 충실하면 모든 가족원들도 이를 본받아 올바르게 되며, 남편이 대외적인 일을 잘 수행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도 아내의 구실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內助인 것이다. 즉, 아내의 올바른 역할은 남편을 더욱 발전, 고무시킨다는 것으로 周나라 宣王의 妃(姜后)를 예로들어 설명했다. 이는 욕정을 함부로 하여 예의를 잃어버리는 것은 이미 몸을 닦는 것(修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며 집안을 바르게 하는(正家) 근본이 상실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관계이지만 서로의 禮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부부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또 가정에서 內主張이 강하면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이에 율곡은 <시경>을 인용하여,

똑똑한(哲) 남편은 성(城)을 이룩하고, 똑똑한 부인은 성을 기울여뜨린다(詩經 大雅, 瞻印).

고 하여 남자가 밖에서 똑똑하면 능히 나라를 세울 수 있지만 부인이 똑똑하면 말을 많이 함으로써 능히 재앙과 변란의 계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부인의 역할이란 가정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배우자 선택에서부터 신중하게 해야 하며 가정의 和睦을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부인의 바른태도가 우선된다.

가계계승의 측면에서는 부자관계가 중요시, 우선시 되었으나 가족내 인간관계는 부부관계가 가장 중심이 된다.

### 3) 부부간의 도리

울곡은 禮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 삼가는 데서 비롯된다고 보았으며 부부관계는 신뢰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해야만 家庭이 바르게 유지된다고 보았다.

지금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비록 금지를 가졌으나 속으로는 독실함이 드므니, 부부 사이는 이부자리 위에서면 흔히 정욕을 함부로 하여 그 위의를 잃는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측근에서 버릇없이 굴지 않고 능히 서로 공경하는 사람이 몹시 적다. 이와 같으므로 몸을 닦고 집을 바로잡고자 한들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꼭 남편은 온화하면서 의로써 제지하고 아내는 유순하면서 정당한 도리으로써 받들어서 부부 사이에 예의와 공경을 잃지 않을 것이니, 그러한 연 후에야 집안 일을 다스릴 수 있다. 만일 종전대로 서로 버릇없이 굴어오다가 하루 아침에 갑자기 서로 공경하고자 하면 그 자세가 뜻대로 행하기 어려우니, 모름지기 바로 아내와 더불어 서로 경계하여 반드시 전의 습관을 버리고 차차 예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아내가 만일 내가 말하는 것이나 몸가짐이 한결같이 바르게 나오는 것을 본

다면 반드시 차차 서로 믿고 순종하게 될 것이다(栗全 卷27, 격몽요결, 居家章).

이와같이 울곡은 남편은 和와 義로서 아내를 대하며, 아내는 順과 正으로써 남편을 대하여, 서로 예의와 공경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하여, 아내나 남편 어느 한쪽의 노력이 아니라 쌍방의 노력으로 서로를 경계하여 禮를 지킬 것을 강조했다.

또한 울곡은 夫婦의 道가 모든 도리의 시작이며, 그 지극한 데에 이르러서는 天地에 가득찬다는(중용 20장) 귀절을 인용하고, 임금이 있어서도 부부간의 도리는 마찬가지라고 보아 그 영향이 백성에게까지 미친다고 말하였다.

임금이 정가(正家)하는 효과는 부부간의 잠자리 사이에서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나라의 경내에 넘쳐 흐르게 되고, 그러면 호령을 발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풍속을 쉽게 개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덕화(德化)가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끝을 맺겠습니다(栗全 卷23, 성학집요 V, 正家, 正家功效).

라고 하여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혼인관계에 의해 성립된 부부이며, 부부는 혼인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과정과 적응을 경험하게 된다. 부부는 긴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상호간에 인격적 조화를 이룩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지만(김양희, 1990, 160) 삼가는 예가 없으면 人倫의 질서가 무너져 존중심이 없어질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즉,

사랑에 빠진 자는 밝지 못하고, 탐내는 자는 싫어하는 것이 없는 것인데, 이것은 치우쳐서 해가 되는 것이니, 집안이 가지런히 다스려지지 못하는 까닭이 된다(栗全 卷23, 성학집요 V, 正家, 謹嚴章).

라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간의 긴밀한 사랑도 서로의 존중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어야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家庭의 秩序가 확립된다고 보고 울곡은 특히 부부간의 잠자리에서의

예의와 공경을 강조했다.

율곡은 또한 <禮記>의 귀절을 인용하여, “남자는 안 일에 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여자는 바깥 일에 관해서 말하지 아니한다(栗全 一, 520).” 고 하여 서로의 맡은 바 구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구실에 대한 존중을 말함이다. 비록 부부간의 사랑뿐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일에 관해서도 각자의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인의 일은 부인이 잘할 것이라는 믿음과 남편의 일은 남편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

이와같이 서로의 능력을 존중해 준다면 집안은 저절로 잘 이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율곡은 대학의 말을 인용하여 正家章을 끝맺고 있다.

한 집안이 인(仁)하다면 온나라가 인해지고,  
한 집안이 겸양하다면 온 나라가 겸양해진다  
(栗全 卷23, 성학집요 V, 正家, 正家功效).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율곡의 부부관계에 관한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부부란 인륜의 시초이므로 배우자 선택이 중요하다.

둘째로, 따라서 혼인의 禮가 바르고 지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세째로, 부부에 있어서 부인의 구실이란 가정의 화목과 직결된다.

네째로, 부부간에는 삼가하는 예절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쌍방적인 관계를 말한다.

다섯째로, 부부는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이어서 각기 맡은 바 구실이 다르다.

여섯째로, 부부간에는 신뢰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해야한다.

일곱째로, 부부간의 도리는 남편은 은화(和)하면서 올바름(義)으로 가정을 이끌고 부인은 유순(順)하면서 정당한 도리(正)로써 뒷받침해준다.

즉, 부부란 각기 맡은 바 구실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2. 부모자녀관계

율곡은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식된 이는 피와 살과 성명도 모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관계이다. 따라서 자신의 몸은 나의 소유가 아니고 바로 부모의 소유이며 몸을 주신 부모에게 은혜를 보답해야 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사람의 자식은 이러한 이치를 깨달아 사랑은 仁을 완전하게 하는데 이르도록 한 공경은 義를 완전하게 하는데 이르러야 가히 낳아주신 바를 욕되게 하지 않는다(栗全 卷23, 성학집요 V, 正家, 孝敬章).

또한 효도와 공경은 모든 행동의 우두머리가 된다(栗全 卷23, 성학집요, 정가, 효경장)고 했다. 따라서 부모자녀관계는 사랑·효도·공경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부모자녀관계는 혈연으로 이루어져 저절로 우리나라는 情과 恩의 情緒로 결합되어 있다. 즉, 父母는 자녀에게 生命을 준 恩人이며, 肉身을 준 恩人이고, 삶 의 恩人이어서 자식으로서 이에 대해 報恩하여야 되는 의무감을 갖게 되며 父母에 대한 은혜란 아무리 보답하여도 끝이 없는 것이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분신으로서 또 미래에 家를 계승시킬 존재로서 사랑스럽고, 情에 치우치기 쉽다. 이러한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은 부모에 대한 은혜와 사랑하는 자식에 대한 情을 절제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면 올바름과 윤리적가치(正理)를 잃게 된다.

보통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흔히 사랑이 공경보다 지나치는데 꼭 낚은 습관을 철저히 씻고 자식은 부모를 극진히 존경해야 한다(栗全 卷27, 격몽요결, 事親章).

이와 관련하여 율곡은 <易經> 家人卦 九三 爻辭의 말을 인용하여 정자가 설명한 것을 제시하고 있다.

부녀자와 아이들이 지나치게 웃거나 떠든다면, 마침내 후회하게 되는 것이다. 정자는 말하기를, ‘회회는 웃거나 즐기는 것이 절도가 없다는 것이다. 집안에서 같은 육친인 부자 간에는 대개 정(情)으로써 예(禮)를

이기고, 은(恩)으로써 의(義)를 빼앗게 되는 것이다. 오직 강직하게 뜻이 선 사람만이 능히 사사로운 사랑 때문에, 그 정리(正理)를 잃지 않는 것이므로, 마음이 강직한 것을 최선으로 삼는다. 엄격하고 삼가는 것이 지나치면, 비록 정리가 손상되지 않을 수 없으나, 진실로 법도를 세우고 윤리를 올바르게 하면, 바로 은의가 존립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에 회회하여 절도가 없으면, 법도가 그 때문에 폐지되는 것이요, 윤리가 그 때문에 문란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찌 능히 그 집안을 보존할 수 있겠는가. 끝내는 폐가하는 지경에 이르고, 부끄러워서 후회하고 한탄하게 되는 것이다(栗全 卷23, 성학집요 V, 正家, 謹嚴章).

이것은 자녀를 사랑하되 무분별한 사랑은 가정내 윤리를 무너뜨리므로 義에 합당한지 어떤지를 항상 생각하여 仁愛와 不義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다.

즉, 仁愛는 正義와 대립한다. 사랑은 不義를 용서하고 正義는 不義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맹자는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不善을 미워하는 마음(수오지심)을 義의 端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義가 결여된 仁은 墨家の 兼愛와 같이 분별이 없는 사랑이다(한명수, 77).

부모의 溺愛의 태도는 무조건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므로 욕구에 따라 자기중심적이 되고 작은 일에도 욕구불만이 많으며 바람직한 성격형성에 곤란(나병술, 1981, 192)하다. 따라서 부모자녀와의 관계는 절도있는 情과 恩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율곡의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부모자녀는 혈연의 관계로 자식된 자의 몸은 부모의 소유이다.

둘째로, 부모는 자식에게 은혜를 주고 자식은 부모에게 보은해야 하는 존재이다.

셋째로, 부모와 자녀관계는 자연스러운 情과 사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바름과 도리를 잃지 않도록 절도가 있어 한계가 분명해야 한다.

네째로, 부모자녀관계는 사랑과 공경을 바탕으로 하지만 항상 禮와 義를 생각해야 한다.

### 3. 형제자매관계

율곡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형과 아우는 같이 부모에게서 몸뚱이를 물려받은 것이니, 나와 한몸 같은 것이다. 따라서 마땅히 저와 내가 간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음식과 의복의 있고 없고가 모두 마땅히 함께 하여야 한다. 가령 형은 굶주리고 아우는 배부르며 아우는 춥고 형은 따뜻하다면 이는 한몸 속의 사지(四肢)나 몸뚱이가 혹은 병들고 혹은 튼튼한 것과 같으니, 몸과 마음이 어찌 편안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 사람들이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어찌 그 부모의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형제로서 만일 좋지 못한 행실이 있다면, 마땅히 정성을 다하여 충고를 하되, 차차 이치로써 깨우쳐 마음에 느껴 깨닫게 할 일이지, 갑자기 노여운 안색을 하거나 거스리는 말로써 그 화목을 잃어서는 안 된다(栗全 卷27, 격몽요결, 居家章).

여기에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시초가 되어 형제간의 사랑을 설명한 것은 곧 이것이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근본이라는 것이라고 보아 율곡은 첩산사씨(疊山謝氏)의 말을 인용하여,

형제가 화목하지 아니할 것이면 같으면 곧 가정의 분위기가 어긋나서 어지럽지 아니한 것이 없게 되어, 비록 처와 자식을 거느리는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역시 그 즐거움은 불안하게 될 것이다. 오직 형제가 화락하면 한 집안의 우애가 서로 화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역시 처와 자식의 즐거움이 오래갈 수 있는 것이다(栗全 卷23, 성학집요 V, 親親章).

즉, 형제간의 관계는 나의 수족과 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제간의 사랑은 부모를 사랑함으로써 비롯되며 가정의 화목을 좌우하는 중요한 관계라고 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형제자매관계란 나와 한몸이나 마찬가지로 지이다.

둘째로, 따라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형제간에도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

셋째로, 형제간에 잘못이 있다면 충고하여 깨닫게 해줘야 한다.

네째로, 이러한 형제자매간의 관계는 가정의 화목을 좌우한다.

## V. 결 론

가정은 인간의 기초인격이 형성되는 사회집단인 만큼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긴밀하고 화목하게 이루어지느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栗谷이 正家를 통해 가족관계를 서술한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가족의 화목에 있다. 가족간에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는 父慈子孝와 兄友弟恭의 개념으로 말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부부이며 부부는 혼인에 의해 탄생되며, 부부로 인해 공동체가 점점 확대되므로 가족관계 중 가장 핵심은 부부관계이다. 또한 가정에서 아내가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가족과 친척간의 화목이 좌우되며, 남편의 대외적인 성공여부도 좌우되며, 부부간의 도리에서는 안 일과 바깥 일의 구분이 분명하여 서로 맡은 바 구실을 존중했으며, 삼가하는 도리에서도 어느 한편만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존중의 도리를 강조했다.

따라서 부부관계에서 배우자 선택과 아내의 구실, 부부간의 삼가하는 도리를 강조했다. 이는 오늘날 핵가족의 구조에서 가족의 핵심체는 부부로 이루어졌으며 자녀양육기간의 단축에 따른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 계승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가족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아내의 정서적 역할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현상에

비추어볼 때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

부모자녀관계는 자녀는 부모에 대한 은혜로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에 대한 情을 절제하지 못해 지나치게 되면 올바름과 윤리적 가치(正理)를 잃게 되기 쉽다고 하며 溺愛型의 부모 양육형태를 우려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한 두명의 자녀를 두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자녀위주의 가족생활을 하기 쉬우며 과잉보호를 하기 쉽다.

이에 부모자녀관계는 사랑이 공경보다 지배적인 습관을 철저히 씻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공경·효도로써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사회의 비윤리적인 가정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사상은 옳곡이 강조했듯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게 함으로써 습관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형제자매관계에서 형과 아우는 한 부모의 몸에서 나뉘어져 나왔으므로 한 몸과 같이 생각하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형제자매간의 사랑은 부모를 사랑함으로써 비롯된다고 했다. 이것은 곧 가족의 화목을 이루는 근본이며 형제가 똑같이 잘살아야 참다운 화목을 누릴 수 있고 그 즐거움이 오래 지속된다고 했다. 자칫하면 형제자매관계는 경쟁적인 관계로 되기 쉽기 때문에 적대적인 감정이 생길 우려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옳곡의 이러한 사상은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교육시킬 때 가르치므로써 우애적인 형제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와같이 가정이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결국 화목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과 직결된다. 가족이란 사회라는 큰 체제 속에 소속되며 가족 상호간의 영향은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가족은 사회가 만들어내는 조건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지만 사회는 가정이 풍기는 화목한 분위기를 필요로 한다. 사회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관계의 근본은 오직 화목한 가정에서 비롯되는 활력이 있을 때에 인간성 회복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바람직한 가족관계를 일상생활 속에서 유지함으로써 그 영향은 사회에까지 파급되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빛을 밝히고 가치있는 행동내용을 만드는 인간관계의 핵심인 것이다.

성학집요는 약 418년전의 저술이지만 이상과 같이 현대사회에서의 가족간의 도리에 비추어 보아도 여전히 가치를 발휘한다고 평가된다. 사회가 아무리 급변해도 가족관계라는 기본구조와 그 구조가 갖는 성격은 크게 변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가족간의 지켜야할 도리는 비록 가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내에서의 대인관계와도 연결이 되며, 세계는 공동체라는 이념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우리의 전통사상에서 계승해야할 가치를 찾아 이것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에 적용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공세권 외(1990). 한국가족의 기능과 역할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 김경탁(1960). 율곡의 연구. 한국연구총서 제7집. 한국연구도서관.
- 3) 김경탁(1987). 한국윤리사상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논총 87-2.
- 4) 김양희(1990). 가족관계학. 수학사.
- 5) 김익수(1985). 율곡의 실천철학. 율곡철학과 한국의 성리학. 율곡사상연구원. 한국사상논총 4.
- 6) 김종서(1990). 전통사상의 개념. 전통사상의 현대적 의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논총 90-8 : 26-27.
- 7) 박의수(1991). 율곡 교육사상의 인식론적 연구. 고려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 8) 배용광(1991). 동서양규범문화의 변화. 한국 사회의 규범문화. 정신문화문고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9) 배종호(1984). 율곡의 윤리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3회 국제학술회의논문집.
- 10) 손인수(1982). 栗谷의 教育思想. 박영문고 195. 박영사.
- 11) 손인수(1983). 한국인의 전통적 윤리의식. 정신문화연구. 가을호.
- 12) 손인수(1984). 율곡의 입지론과 평생교육.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3회 국제학술회의논문집.
- 13) 손직수(1982). 조선시대 여성교육 연구. 수선신서 5.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14) 심우섭(1990). 한국전통사상의 이해. 형설출판사.
- 15) 윤명노(1985). 전통적 가정윤리교육. 정신문화연구. 가을호 : 128-134.
- 16) 윤용림(1984). 율곡사상의 현대적 이해. 공주사대논문집 22. 사회과학편.
- 17) 이길표(1982). 가례를 통해 본 한국인의 의식구조연구. 고려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8) 이민태(1987). 율곡의 교육철학사상. 충남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 19) 이병도(1979). 율곡의 생애와 사상. 서문문고 93. 서문당.
- 20) 이상선(1985). 율곡의 교육철학. 율곡철학과 한국의 성리학. 율곡사상연구원. 한국사상논총 4.
- 21) 이천세(1977). 사회발전을 위한 한국가족관계의 근대적 접근. 안동교대부설안동문화연구소. 안동문화 8.
- 22) 임동철(1986). 유교사상의 정신적 유산과 현대사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 제20집.
- 23) 임희규(1992). 부부의 의사결정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 24) 임희섭(1988). 사회변동과 가치관. 정음사.
- 25) 정 종(1990). 공자의 교육사상. 집문당.
- 26) 조남국(1985). 율곡철학 형성의 연원에 관한 연구. 율곡철학과 한국의 성리학. 율곡사상연구원. 한국사상논총 4.
- 27) 지영숙(1987). 정약용의 가정교육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 28) 최재석(1987). 한국가족연구. 일지사.
- 29) 황성모(1984). 전통사상과 외래사상. 불교사상 9 월호.
- 30) 황준연(1989). 李珣철학연구. 전남대학교출판부.
- 31) 황준연(1990). 퇴계의 성학십도와 율곡의 성학집요에 관한 비교 연구. 성곡논총 21. 성곡학술문화재단.
- 32) 황준연(1992). 한국사상의 이해. 박영사.
- 33) Tu Wei-Ming(1985). Yi Yulgok's Perception of Sagely Learning. 제3회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318쪽.
- 34) 栗谷全書(199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35) 栗谷集(1977). 고전국역 총서 22-23. 민족문화추진회.